

고즈넉한 산사서 어린 왕자를 만나다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
한불수교 130주년 기념
2017 어린왕자 특별전
프랑스 생텍쥐페리재단 주관

조형·삽화·드로잉 등 100여점
탐험 형식 5개 전시공간 구성
내년 4월까지 매달 예술제도 열어



▶ 지난 27일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에서 열린 '어린왕자 예술제'. <티벳박물관 제공>

지난 27일 오후 보성 대원사 티벳박물관(관장 현장 스님) 앞마당에서는 한스 짐머가 작곡한 '어린 왕자' OST "Turnaround"가 흘러나왔다. 이순남(문화사랑시인연대 대표) 시인이 어린 왕자와 여우의 이야기를 나레이션으로 곁들여 늦봄 산사를 운치 있는 분위기로 만들었다.

티벳박물관은 지난 4월부터 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2017 어린 왕자 특별전'을 열고 있다. 지난해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추진한 전시로, 프랑스 생텍쥐페리재단·어린 왕자 아시아 전속전시기획사 '익스포지션 SWG'이 주관한다.

2018년 4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프랑스 작가이자 비행사인 생텍쥐페리(1900~1944)의 대표 소설 '어린 왕자'를 재해석해 화염경 입법제품에 등장하는 선재동자가 유람에서 어린 왕자로 탄생했다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다. 선재동자는 선지식인(善知識) 53명을 찾아다니며 깨달음을 얻고 어린 왕자는 별 7곳을 여행하며

지혜를 얻는다는 이야기를 재구성했다.

어린 왕자와 생텍쥐페리 이야기를 따라 조형물·삽화·드로잉 등 100여점이 설치된 5개 전시 공간을 탐험하도록 구성했다.

첫번째 공간에서는 다양한 조형물을 통해 생텍쥐페리와 어린 왕자를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다. 작가 생텍쥐페리는 항공사에서 근무하며 베트남에서 프랑스 파리를 빠른 시간에 도착하는 대회에 나간다. 비행 도중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그는 5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다. 전시장에는 먹다 남은 포도주, 굴, 비행기 잔해 등 사고 현장을 재현했다. 생텍쥐페리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는 순간 멀리서 다가오는 어린 왕자를 만나는 이야기를 전해준다.

두번째 공간은 관람객이 직접 어린 왕자가 돼 우주는 여행하는 자리다. 권력욕·허영심·소유욕 등이 새겨진 원형 조형물 6개 사이로 신책하며 어린 왕자가 외치는 '어른들은 잠 이상해'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자,

셋째 공간에는 생텍쥐페리의 감수성과 유머를 엿볼 수 있는 드로잉(사본)이 전시됐다. 빨간 머플러를 휘날리며 별에 서 있는 어린 왕자, 꽃밭을 거니는 돼지 등 글만으로는 이해할 수 힘든 작가의 예술세계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어린 왕자 미공개 삽화(사본)도 전시된다. 작가 생텍쥐페리가 최초로 습작했던 어린 왕자와 인물들의 드로잉을 비롯해 전 세계에 흩어져있는 관련 자료들을 한군데 모았다. 다양한 일러스트 습작들은 누구나 마음 속에 있는 어린 왕자를 불러낸다.

마지막 공간은 생텍쥐페리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을 통해 생텍쥐페리를 재조명한다. 파일럿 복장을 한 채 헤드셋을 끼고 있는 모습부터 집필하고 있는 모습까지 우리가 몰랐던 작가의 일상을 볼 수 있다. '어린 왕자' 출간 이후에도 비행에 대한 꿈을 버리지 못한 작가는 44세가 되던 1944년 제2차 세계대전 때 군용기를 몰던 중 행방불명이 된다.

전시는 꿈을 향해 끝없이 도전하는 생텍쥐페리 정신을 선보이며 마무리한다.

티벳박물관은 연례 행사로 내년 4월까지 매달 주제를 달리하는 '어린 왕자 예술제'를 개최한다.

지난 27일 개막식에서는 재즈피에스타가 들려주는 OST를 비롯해 테너 박현, 소프라노 이승희, 국악가수 이은비, 광주 어린이 요들합창단, 팝페라그룹 '빅맨싱어즈' 등이 무대에 올랐다.

오는 6월에는 어린 왕자와 선재동자 이야기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여름방학 기간 국립광주과학관과 연계한 어린이 전문학제캠프도 여는 등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한다.

현장스님은 "프랑스로 떠난 선재동자가 어린 왕자로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며 "앞으로 생텍쥐페리재단과 협의해 어린 왕자문화학과 팬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문의 061-852-303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시장 외부에 설치된 생텍쥐페리와 비행기 모형.



전시장 내부의 어린왕자 조형물.

'도시의 창-시간의 지갑'...조근호 개인전

31일까지
갤러리 봄



▶ '도시의 창-시간의 지갑'

조근호 작가는 창문을 통해 본 도시 사람들의 일상을 작품에 담고 있다. 때로는 멀리서, 때로는 가까이 들여다보며 현대인들의 기쁨, 희망, 슬픔, 분노 등을 공유한다.

조 작가가 신작을 들고 20번째 개인전을 연다. 오는 31일까지 광주시 동구 예술의 거리 갤러리 봄에서 초대전 '도시의 창-시간의 지갑'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풍경과 인물을 단순한 색채와 표현으로 담은 '도시의 창-시간의 지갑' 연작 20여점을 선보인다.

이전 전시에서는 풍경과 인물을 단순한 색채와 표현으로 담은 '도시의 창-시간의 지갑' 연작 20여점을 선보인다. 부제 '시간의 지갑'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트로일러스와 크레스이다'에 나오는 말이다. 세월이 지나면 기억들이 지갑 속으로 들어가 망각에 빠지고 가끔씩 지

갑에서 불쑥 튀어나와 추억으로 되살아난다는 내용이다.

'도시의 창-시간의 지갑' 시리즈는 담담한 분위기가 특징이다. 불필요한 요소는 과감히 생략하며 자연에 대한 사색의 시간을 제공한다.

또한 지난 작품에 비해 색채가 더욱 풍성하다. 분주한 도시 일상을 소재로 삼으며 다양한 우리네 이야기를 들려준다.

조씨는 조선대 미술대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016 광주비엔날레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20주년 기념전 등에 참여했다. 제5회 광주 신세계 미술상(2002)을 수상했으며 현재 선과색, 한국전업미술가회 등에 참여하고 있다. 문의 010-9078-1800. /김용희기자 kimyh@

갤러리 리체

김유섭 교수

30일까지 초대전



▶ 'Floating View'

김유섭 조선대 미술학과 교수가 갤러리 리체에서 'Floating View'를 주제로 30일까지 초대전을 갖는다.

김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지난 2015년 전시했던 가로 4m 크기 대형 연필 드로잉 1점과 추상 풍경 시리즈 신작 9점 등을 공개한다.

신작은 1980~90년대 독일 유학 시절 작업한 '검은 그림' 시리즈에서 발전한 '유색 그림' 시리즈다. 그동안 김 교수는 가로 연필과 지우개로 회화적 감수성을 보여주기 위한 작업을 이어왔다.

'유색 그림' 시리즈는 새로운 표현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다. 노랑, 파랑, 빨강 등을 배경으로 삼아 다양한 색채를 담는다. 색 파동과 빛 산란이 부딪히는

순간을 포착했다. 마치 빙하 흘러내리는 흔적처럼 묘사에 관람객들에게 생생함과 소명을 반복하는 우주와 자연을 생각하게 한다.

특히 전시 공간의 특징을 이용한 작품 배치가 눈에 띈다. 전시장 바닥에 비추는 반사광을 이용해 추상 작업을 극대화시켰다.

김씨는 광주 출신으로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3학년 때 독일 베를린 국립예술대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조선대 교수로 부임하기 전인 5년 전까지 독일과 광주, 서울, 일산 등에서 활동을 했으며 경기도 작가 모임 '자유로' 대표를 맡고 있다.

문의 062-412-000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